

## ‘리시트트라타’에서 ‘악마의 시’까지

# 작품이 태어난 ‘고향’ 통해 시대를 읽다

### 문학의 역사에서 자행된 금서사건



단 한 줄도 읽지 못하게 하라

주씨 지음

역사 이래 모든 시대에는 통제와 검열이 존재했다. 금서 조치는 권력자들이 손쉽게 휘둘러 수 있는 손쉬운 통제 수단이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 히틀러의 분서만행, 가톨릭교회의 금서목록 등 사회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책들이 찢기거나 불태워졌다. 물론 작가는 추방을 당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은 펜을 무기 삼아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사회를 풍자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작품에 형상화함으로써 세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모든 사람은 문학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사를 보틀레르의 말처럼 “결론을 내리는 것은 독자의 몫”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검열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잣대를 들이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작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든 금서는 한 시대를 뒤엎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 위엔 대학

교 부교수인 주씨가 펴낸 ‘단 한 줄도 읽지 못하게 하라’는 금서가 지닌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고전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이다.

책은 기원전 410년의 ‘리시트트라타’부터 1988년 발표된 ‘악마의 시’까지 문학의 역사에서 자행됐던 금서 사건을 당시 작가 및 주변 인물들이 남긴 기록과 풍부한 원문 인용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책에는 금서로 지정된 원인을 사회 비판과 대중선동,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자유로운 사상에 대한 통제, 풍기문란 네 가지 주제가 담겨 있다.

금서를 보면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의 사회 풍조와 그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상과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금서는 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자유의 수준을 판단하는 잣대다.

책은 오늘날의 한국 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9437명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을 예술을 길들이는 데 사용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유명 작가 에밀 졸라는 이렇게 주장했다. “내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할 권리가 있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라고.

〈글담출판사·1만6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품의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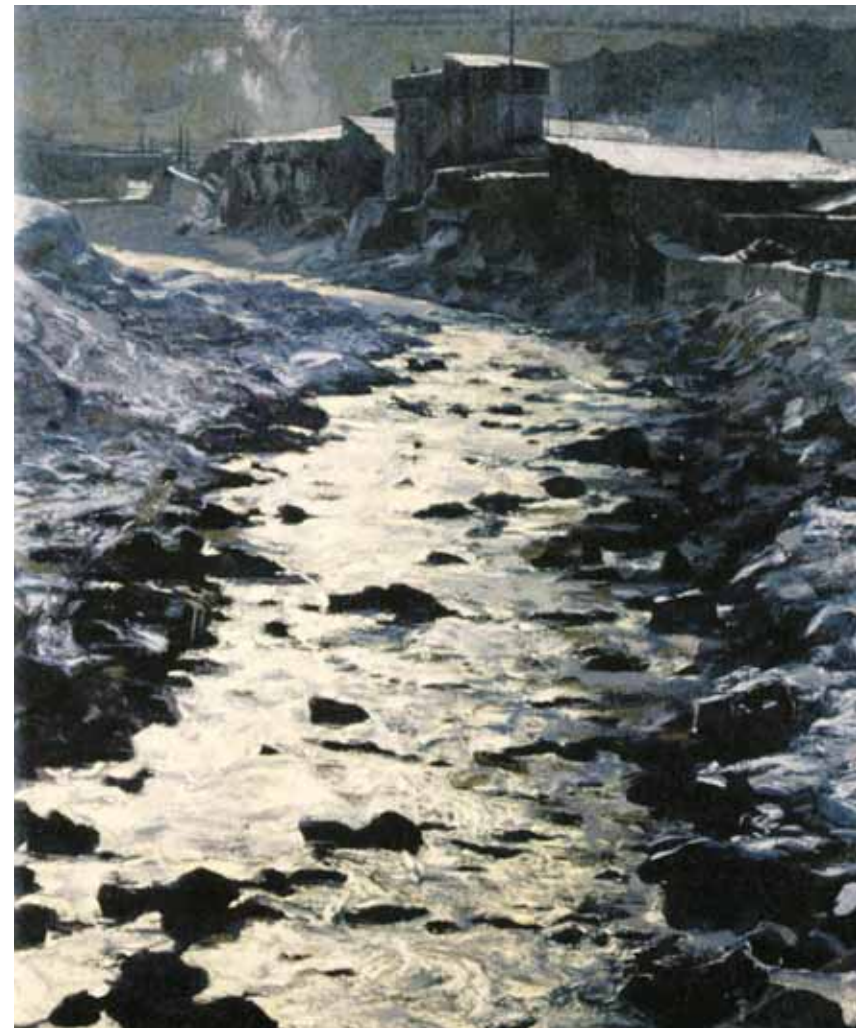
임종업 지음



“작업하려고 왜 탄광에 옵니까, 어려서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편안한 잠자리에 안일한 사람에게는 경각심을, 불편한 잠자리를 자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안식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었죠. 당시 노동이 삶을 지배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노동이 삶에서 어떻게 가져지고 있는지(화가 특유의 화법, 노동의 실태와 의미를 뜻함), 가장 접미한 곳에 인간 삶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태백과 황재형 II’중에서)

올해 제1회 박수근 미술상을 수상한 황재형(64)씨는 탄광과 광부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다. 그는 30년 넘게 광부들과 함께하며 탄광촌과 삶을 캔버스에 옮겼다. 많은 이들은 그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태백이라는 보성이다.

남도 사람이 그가 어떻게 태백에서 30년이 넘게 살았을까? 그는 “삶의 풍경을 잘 드러내는 현상이 탄광”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물학적인 고향은 보성이지만, ‘작품의 고향’이 태백인 이유다.



작가가 타고 자란 고향이나 작가의 의식이 투영된 작품의 공간은 한 시대의 역사를 담아내는 매개체다. 사진은 황재형 작 ‘탄천의 노을’.

대개의 경우 작가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본디 타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작가의식을 반영하는 제2의 고향을 찾아 그곳에서 살며 작업한다. 황재형 화가의 경우는 후자다.

이처럼 작가들에게 ‘작품의 고향’이 되는 장소는 시대를 담은 창이기도 하

다. 작품이 태어난 장소와 화가의 시대를 조명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중앙 일간지 기자출신으로 책, 영화, 미술 분야 취재를 담당했던 임종업 씨가 펴낸 ‘작품의 고향’은 우리 땅과 시대를 작품에 담아온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다. 책에 언급된 이들은 모두 한국 화단에

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들이다. 겸재 정선(인왕산), 허씨 삼대(진도), 전혁림(통영), 강요배(제주도), 이종구(오지리)는 실제 자신들의 고향 산천과 사람을 작품에 담았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화에 머물지 않는다.

수천 년의 역사를 좇아 간 박대성(경주)과 광부가 되려고 한 황재형(태백)은 제2의 고향을 개척해 그곳에 정주한 케이스다. 의식적으로 그곳의 삶을 선택한 만큼 작품의 울림은 남다르다.

서용선(영월), 김기찬(골목길), 송창(임진강) 또한 끌리는 장소를 찾아 오랜 시간을 두고 작업했다. 서용선은 단층의 에사를 풀어내고, 사진작가 김기찬은 아무도 관심주지 않던 서울의 골목길을 기록으로 남겼다. 송창은 임진강 그림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조명하려고 한다.

이처럼 책에서 소개하는 작가들은 당대를 대표한다. 이들 작품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장소’와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 미술의 큰 흐름을 되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 서산, 지리산, 진도, 제주, 통영, 경주, 영월, 태백, 임진강을 순례하는 동안 한반도의 산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산은 꿈틀거리다 평야로 찾아오고, 강이 그 사이로 구비치고 그 끝에 바다가 파도쳤다. 이 땅에 살아왔고 지금도 질기게 살아가는 민중의 몸짓으로 바뀌었다. 연대기였던 한국사가 실물화 되었다.”

결국 작가들이 찾은 곳은 태어난 곳이다. 흠뻑 들어간 곳이다. ‘고향’이다. 이들은 왜 고향이라는 안식처를 찾아 작품 활동을 했을까. 아마도 글을 쓴 저자에게 장소는 역사이자 인문학의 본질이라 날카롭다.

〈소동·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테리아는 어떻게 식물의 광합성을 돕는가



박테리아

베른하르트 케겔 지음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박테리아와 긴밀한 공생관계를 이어간다. 인체에도 수많은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요한 존재인 박테리아임에도 인간들은 적잖은 실수를 저질러왔다. 오직 질병과 관련된 병원체 연구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질병과 죽음’이 아니

라 ‘건강과 협력’의 관점에서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베른하르트 케겔이 펴낸 ‘박테리아’는 새로운 박테리아의 면모를 소개한다. 어떻게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영리하게 동물을 조종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들려준다.

저자는 무엇보다 박테리아에 대한 오해를 떨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테리아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인간의 신체도 포함된다. 우리 피부에는 전 세계 연구에 상응하는 몇 십 억개의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으며 내부에 살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그 수는 무려 100조 개에 이른다.

〈다른세상·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발명 소녀에서 발명리더로 거듭난 대학생 이야기



발명을 통해 꿈을 이룬 여대생들

문혜진·송혜린 지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을 어렵게 느낀다. 발명을 하면 뭐가 좋을까? 발명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발명과 발견은 영감과 노력 이전에 하나의 ‘습관’이다. 세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하고, 무엇이든 만들어보는

평소의 습관이 쌓여서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라고 한다.

발명을 어렵게 느꼈고 창의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두 여대생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발명대회 수상경력을 지닌 서강대 문혜진·송혜린 학생이 펴낸 ‘발명을 통해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여대생들’은 발명소녀에서 발명리더로 거듭난 이들의 이야기다.

책은 두 학생이 직접 경험한 발명활동에 대한 생생한 조언과 여러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지식공감·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국 맛집 104곳 10개 테마별로 나눠 소개



식당 골리주는 남자

노중훈 지음

출장과 원고 마감, 그리고 ‘여행밤’, 여행자가 노중훈씨 일상의 9할을 차지하는 ‘트라이 앵글’이다. 노 작가는 18년째 나라 안팎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작가는 작고, 허름하고, 오래됐지만 맛있는 전국 맛집 104곳을 ‘내가 가는 길이 맞다’와 ‘술 한잔 당기는 날’, ‘불편해도 팬

참아’ 등 10개 테마로 나눠 소개한다.

작가는 4년 전, 라디오 음악방송에 출연해 ‘늦어름에 가기 좋은 여행지’를 얘기하다 맛집 소개 코너를 고정으로 맡게 됐다. 작가의 발품 덕분에 장흥 매생이국, 구례 소내장탕, 군산 콩나물국밥, 완주 김치찌개, 무안 짬뽕이, 여수 백반 등 전국 각지의 진수성찬이 차려진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구례 치킨집과 여수 연등천 41번 포차, 구례 가오리집 등 전남지역 맛집도 눈에 반짝 띈다. 작가는 광주일보 저매지 월간 ‘여행’에 ‘노중훈의 꿈의 여행’을 연재하고 있다.

〈지식니머·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제의 상가 분양] 적은 투자로 매달 따박 따박 월 임대료 받으세요~

## 광주 투자자들 선호하는 Home plus 와 CGV\*1층상가 12월 오픈 예정.

1층 수평형 Mall+56% 테라스 설계/고객순환형 동선설계+일반상가 보다 높은 6m 층고

▶예상 수익률 표		(VAT 미포함) 단위 : 원	
계약면적 <b>21.83 (구)평</b>	계약면적 <b>25.47 (구)평</b>	계약면적 <b>35.64 (구)평</b>	
실투자금 <b>207,400,000</b>	실투자금 <b>273,000,000</b>	실투자금 <b>298,800,000</b>	
보증금 <b>20,000,000</b>	보증금 <b>30,000,000</b>	보증금 <b>30,000,000</b>	
월 임대료 <b>1,800,000</b>	월 임대료 <b>2,400,000</b>	월 임대료 <b>2,600,000</b>	
년 임대료 <b>21,600,000</b>	년 임대료 <b>28,800,000</b>	년 임대료 <b>31,200,000</b>	
대출시 연수익 <b>16,294,000</b>	대출시 연수익 <b>21,730,000</b>	대출시 연수익 <b>23,528,000</b>	
수익률(예상) <b>7.9%</b>	수익률(예상) <b>8.0%</b>	수익률(예상) <b>7.9%</b>	

※대출 40% ,금리 3.5% 기준

분양문의 **062)412-2237**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신(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